

# 마음을 열고 함께 밥을 먹으며...

## 송은순

송은순 사모는 텍사스에 있는 성누가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비오는 날이면 꽃이 그려진 카드에 편지 쓰기를 즐기며 날마다 새롭게 부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배고픈 이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랜드리 디너 홈리스 사역은 이제 우리 교회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이요 친구가 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텍사스 킬린에 위치한 성누가교회는 말한다. 지금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프랜드리 디너 사역에 대해 들어본다.



**어디 특별하게** 메인 것 없이 사는 내가 오늘은 어딘가로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하다. 앞치마를 챙기고 점심재료까지 준비하느라 종종걸음을 친다. 우리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인, 프랜드리 디너(Friendly Dinner)를 위해 일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프랜드리 디너는 우리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사역 중의 하나이다.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주변에는 항상 홈리스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교회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고 먹을 음식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다.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시작한 사역이 바로 프랜드리 디너인데 올해로 12년째 계속하고 있다.

봉사자들이 5조로 나누어서 비프프로프, 치킨 왕, 중국 음식, 불고기 백반, 스파게티 이렇게 매주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대접하는데 서로들 자기네가 만든 음식이 인기가 더 많다고 야단이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배고픈 이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하자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인 목사님이 간단한 설교와 함께 기도를 해주신다. 식사 후에는 건강의 문제나 일상적인 상담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들도 있고, 어느 때는 관공서에 가서 처리할 일이며 서류를 들고 와서 작성해 달라는 이들도 있다.

이 프랜드리 디너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하다가 우리교회에 등록하는 타인종 교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Becky는 프랜드리 디

너를 통하여 우리교회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Marvin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구 집에 기거하면서 정말 배가 고파서 저녁을 얻어먹으러 왔었는데 그 후 유스그룹에 열심히 참석하며 음향을 담당하고 있다. 피죄죄한 모습으로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며 밥을 얻어먹고 갔던 이들이 어느 날 말끔해진 모습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밥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과 변화를 싣고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활이 많이 나아졌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만 되면 엄마 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가듯이 12년째 계속 오는 이들도 더러 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을 처음 먹으러 왔던 멕시코 아줌마는 작년에 군에 입대한 큰아들이 아직도 이 프랜드리 디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준다. 매주 오던 이가 안 오면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닐까? 궁금한 마음이 들고, 언제나 맨 마지막에 아이를 다섯 명 데리고 오는 아주머니가 안 나타나면 끝나는 시간이 되어도 문을 닫지 못하고 음식을 남겨 놓고 기다려 주게 된다.

매주 약 8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프랜드리 디너도 안 좋아진 경제사정을 반영이나 하듯이 요즘은 100명이 훨씬 넘는 이들이 오



기 때문에 우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지 어쩔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혹시 교회의 행사가 취소되는 날은 있어도 이 프랜드리 디너는 일 년 열두 달 한 주도 휴업을 할 수가 없다. 이 프랜드리 디너를 안 하면 그들은 저녁을 굶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로 구걸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이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밥을 먹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저들은 홈리스가 아니라 우리와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이요 친구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프랜드리 디너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저 관심 밖에 세워 두었던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리요, 작은 정성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 누구나 함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자리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자리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파게티 국수를 알맞게 삶기 위해 국수 가락을 몇 번이고 꺼내서 먹어보고 또 먹어보면서 그들을 기다리게 된다.

